

직류 전력망 실증센터 구축...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조성

시,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실증기반 R&D' 추진 78억8000만원 투입...전기차 충전·분산형 전원 확대 대응

나주시가 차세대 전력망 구축 정책에 발맞춰 직류 기반 전력 인프라 조성에 나선다. 24일 나주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실증기반 R&D' 사업의 일환인 '미래 직류 기반 전력망 플랫폼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직류 기반 중전압 전력망(MVDC) 실

증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나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전남테크노파크도 공동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기술

개발과 실증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정부가 추진 중인 차세대 전력망 구축 정책과 연계해 기존 교류 중심(AC) 전력망의 한계를 보완하고 분산형 전원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기반 사업으로 추진된다.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추진되며, 총사업비 78억8000만원(국비 38억8000만원, 지방비 40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5월 신규 중전압 직류(MVDC) 실증센터 착공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증센터에는 5kV급 직류 배전이 가능한 인프라

를 기반으로 직류 컨버터, 차단기, 전기차 충전기 등 다양한 직류 전력기기가 구축되며 발전, 변환, 저장, 소비를 아우르는 직류 기반 에너지 흐름을 실제 환경에서 구현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전기차 충전과 신재생에너지 연계 등 다양한 활용 시나리오를 실증하고 직류 전력 기술의 성능과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또 사고 전류 분석, 계통 안정성 검증, 시험 절차서 개발 등 실증 기반 연구도 함께 추진해 직류 전력망 확산에 필요한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직류 전력 기술의 실증을 넘어 실제 적용 기반을 확보하고 향후 산업단지 및 분산에너지 시스템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사업화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정부의 차세대 전력망 정책과 전남 분산에너지 특구 추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사업이다"며 "직류 전력망 실증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는 최근 예비부부 20팀을 대상으로 '두근두근 위대한 탄생, 예비부부 부부출산교실'을 운영했다. 사진제공=나주시

신생아 돌봄부터 플라워 테라피까지

나주시, 출산교실 인기...예비부부 20팀 참여

나주시가 출산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육아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건강한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체험형 부부 출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24일 나주시에 따르면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는 최근 예비부부 20팀을 대상으로 '두근두근 위대한 탄생, 예비부부 부부출산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출산을 앞둔 부부들이 공동 육아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육아 지식을 배우는 동시에 임신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진행된 신생아 돌봄 실습으로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실제 아기 크기의 모형 인형을 활용

해 신생아 목욕 방법과 기저귀 갈기, 속싸개 싸기 등 기본적인 돌봄 방법을 직접 체험했다. 특히 평소 육아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예비 아빠들이 적극적으로 실습에 참여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어 진행된 2부 프로그램에서는 '봄꽃 바구니 만들기' 플라워 테라피가 진행됐다. 참가 부부들은 프리지아와 튤립 등 봄꽃을 활용

해 꽃바구니를 만들며 태아와 교감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보건소는 부부가 함께 출산과 육아를 준비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용근 나주보건소장은 "주말임에도 소중한 생명을 맞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예비부부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임산부 요가와 베이비 마사지 교실 등 건강한 출산과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

'청년이 살기 좋은 행복나주' 실현 본격화

시, 일자리·주거안정 등 59개 정책 추진...173억원 규모

나주시가 청년 일자리와 주거 안정 등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73억원 규모의 청년정책을 추진해 '청년이 살기 좋은 행복나주' 실현에 속도를 낸다. 24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청년 중심 정책 추진 방향과 주요 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는 지난해 청년정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청년 일자리 확대와 주거 안정 지원 등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시는 '청년이 살기 좋은 행복나주'를 비전으로 청년 자립 환경 조성

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복지, 참여·권리 등 5대 분야에 총 5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직무 어드벤처 취업 캠프와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청년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또 면접 정장 대여와 면접 사진 촬영 지원,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 기회 확대와 지역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서 취업 청년을 위한 0원 임대주택을 올해 15호 추가 공급해 총 150호를 운영하고 청년 월세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이와 함께 청년 취업자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연 15만원의 평생학습 수강료

를 지원하는 나주에(愛) 배움바우처와 에너지신산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에너지밸리 연계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 역량 강화에 나선다. 문화·복지 분야에서는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청년문화예술패스사업, 청년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을 통해 문화 활동 지원과 심리 회복을 돕는다. 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도전지원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구직단념 청년의 취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 행정인턴제 등을 통해 청년들의 경력 형성과 지역 정착 기반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청년이 머무르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매화제공원 일대 정비...나주 빛가람동 환경정화

지역 사회단체 회원 등 공원·도로 불법 투기 쓰레기 수거

나주시가 봄철을 맞아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에 나섰다. 24일 나주시에 따르면 빛가람동은 최근 매화제공원 일원에서 지역 사회단체와 함께 새봄맞이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는 의용소방대와 새마을부녀회 등 지역 사회단체 회원과 공직자 등 50여명이 참여해 공원과 주변 도로에 방치된 쓰레기와 불법 투기물을 수거하며 환경 정비 활동을 펼쳤다.

특히 봄철을 맞아 이용객이 증가하는 공원 일대를 중심으로 집중 정비를 실시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활동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지역 주민을 위해 사회단체가 함께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하게 돼 뜻 깊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귀남 빛가람동장은 "환경정화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사회단체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주



빛가람동 사회단체 회원들과 직원들이 환경정화 활동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나주시

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2026년 제14기

광남일보 드림리더 아카데미

개강식 축하 콘서트

일 자 | 2026년 3월 26일(목) 오후 6시

장 소 | 브리브 광주 바이 롯데호텔 5층 대연회장 (구 라마다상무호텔)

일 정 | 오후 6:00 저녁식사(17층 파라뷰)
오후 7:00 개강 축하공연

문의 | 광남일보 사업국 (T.062-370-7090 / 010-3394-9398)



바리톤 김동규
학력 밀라노베르디국립음악원
데뷔 1991 오페라 토스카
수상 1997년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음악부문
1991년 베르디 국제 성악콩쿠르1위
경력 이탈리아 라스칼라극장 주역가수



바리톤 신홍규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 졸업
슈베르트콩쿨 입상
다수 오페라 주역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홍보대사
현) 가천대학교 외래교수



테너 하세훈
한양대학교 성악과 학사 졸업
드레스덴 성악과 석사 졸업
말리아비니 국제 콩쿨 2등 및 청중상
현) 한양대학교 성악과 외래교수
현) 한세대학교 성악과 외래교수

